

장수! 13연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백두대간



백두대간 속 신비의 가야왕국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큰 산줄기가 백두대간이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근처에서 서남쪽으로 그 방향을 틀어 지리산 천왕봉까지 뻗은 거대한 산줄기이다. 동시에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국토의 지세를 파악하고 전통지리를 이해하는 근본을 이루어 왔다. 백두대간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산줄기가 문화권 혹은 생활권을 결정짓는 경계선이 되어 독특한 지역문화와 다양한 생활방식을 만들어 냈다. 1500년 전 백두대간 속 신비의 가야 왕국을 만나본다.

장수가야를 지킨 금남호남정맥

백두대간 영취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금남호남정맥은 북쪽 금강과 남쪽 섬진강의 분수령을 이룬다. 비록 63.3km의 짧은 거리이지만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을 백두대간에 연결시켜 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삼국시대 때 금남호남정맥은 장수가야를 지켜준 천연의 자연울타리였다. 백두대간 산줄기 못지않게 그 산세가 위풍당당해 섬진강유역으로 일찍 진출한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다.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가 가야 소국으로 발전하는데 천혜의 방어역할을 해 줬다.





가야

가야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영남 서부지역에서 호남 동부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세력집단 또는 소국들의 총칭이다.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성산가야가 대표한다. 중국 및 일본 문헌에 기문과 반파 등 20개 이상의 가야 소국이 등장한다. 낙동간과 섬진강 사이에 위치했던 가야는 서쪽이 백제에 동쪽이 신라에 복속됐다. 전북 동부지역에 2개 이상의 가야 소국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북가야를 선언

전북 동부지역에서 하계에 보고된 가야계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묶어 '전북 가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북 가야는 가야의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가야 고총 400여 기와 햇불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던 10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된다.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에 초대된 '가야사'에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대중적으로 홍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삼국시대 때 전북 가야의 위상과 그 역동성을 세상에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북 가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호남 사람들이 오갔던 백두대간 치재에 '봉수왕국 전북 가야' 기념비도 세웠다.

전북가야의 등장

전북 동부지역은 마한 이래로 줄곧 백제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됐다. 1972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일대 야산에서 나무를 심는 과정에 우연히 가야토기가 발견되어 전북 가야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렸다. 금강 최상류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고분군에서 가야토기가 4세기 말엽 경 처음 등장한다. 운봉고원 내 남원 행정리. 월산리 고분군에서도 수혈식 석곽묘에 가야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한다. 이 무렵 가야토기와 백제토기, 마한계토기가 함께 섞여있어 당시부터 주변지역과 교류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북가야의 도약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 운봉고원과 서쪽 진안고원이 5세기 초엽부터 전북 가야의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운봉고원에서는 운봉읍 장교리에 있었던 마한의 정치 중심지가 아영면 월산리.청계리 일대로 이동한다. 장수읍 동촌리와 천천면 삼고리에서 장수 가야의 발전 과정을 풍부한 유물로 보여줬다. 장수 삼고리 3호분에서는 가야토기를 중심으로 백제토기, 신라토기, 마한계 토기 등이 한 무덤에서 함께 출토되어 당시에도 주변 지역과 교류관계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다양한 유물로 일목요연 하게 보여줬다.

전북가야의 융성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장수 가야는 5세기 중엽 경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기문국은 인월면 유곡리와 아영면 두락리 일대로 중심지를 다시 옮긴 뒤 더욱 발전하면서 180여 기의 가야 고층을 남겼다. 최고의 위세품으로 평가 받고 있는 금동신발과 청동거울, 계수호, 철제초두 등은 기문국의 가야 고층에서 한 점씩 나왔다. 백두대간 서쪽에서 유일한 가야 왕국인 장수 가야는 백화산과 마봉산 자락에 240여 기의 가야 고층을 만들었다. 장수 동촌리 19호분에서 나온 말발굽은 철의 생산부터 주조기술까지 하나로 집약된 최고의 걸작품이다.



전북가야의 토기

전북 동부지역 가야의 석곽묘에서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 토기가 나왔다. 전북 가야가 다른 국가들과 역동적인 교류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유물로 뒷받침해 줬다. 전북은 동철서염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전북 동부 지역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이 250여 개소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철산지로 유적과 유물의 성격이 다양성과 역동성을 상징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철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최상급의 토기를 가지고 철산지를 방문했던 것 같다. 한마디로 토기는 당시 물물교환의 증거물이다.



전북가야의 위세품

1500년 전 가야 사람들은 죽어서도 살아생전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릴거라는 계세사상을 믿었다. 이승의 왕이 저승에 가서도 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생전에 쓰던 유품을 시신과 함께 무덤에 부장했다. 운봉고원 기문국의 지배자 무덤에서 금동신발과 철제초두, 중국제 청동거울과 계수호가 출토됐다. 장수 가야의 지배층 무덤으로 밝혀진 장수 동촌리 가야 고층에서는 말발굽이 나왔다. 가야의 영역에서 한 점씩만 나온 최고의 위세품들로 전북 가야의 존재와 함께 당시 전북 가야의 발전상을 유물로 증명해 줬다.

전북가야의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

장수 삼고리 가야 고분에서 동남아에서 제작된 오색옥이 출토됐다. 운봉고원 기문국 지배자 무덤인 남원 월산리에서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에서 중강 남조에서 만들어진 청동거울이 나왔다. 장수 가야의 백성부터 운봉고원 기문국의 지배자까지 당시 문물교류의 국제성을 유물로 보여줬다. 또한, 전북 가야에서 제작된 북발형 투구와 역자형 철촉이 일본에서 상당수 나왔다. 전북 가야는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진 동북아 교역로의 교량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다.





전북가야의 진출

475년 백제는 도읍을 공주로 옮긴 이후 20여 년 동안 정치적인 불안에 빠졌다. 당시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던 전북 가야는 백두대간을 넘어 섬진강유역과 금남정맥 너머 완주군 일대까지 전북 가야의 영향권으로 편입시켰다. 이 무렵 진안군과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가야계 석곽묘가 축조된다.

장수가야는 장분지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옛길을 따라 봉수망을 구축하여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삼국시대 100여 개소의 봉수가 산성과 긴밀한 세트관계를 이루면서 전북 동부지역에서만 학계에 보고됐다.



장수가야는 봉수왕국

전북 동부지역에서 일곱 갈래의 봉수로가 복원됐는데, 모든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 장계분지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장수군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 고층은 240여 기에 달한다. 장수 봉화산.영취산.원수봉.삼봉리 봉수 등 4개소의 봉수 발굴조사에서 장수 가야 고층에서 나온 출토품과 동일한 6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가야토기만 출토됐다.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왕국으로까지 발전했던 장수 가야가 백제의 동태를 살피고 제철유적을 방비하기 위해 많은 봉수를 배치했던 것 같다. 장수 가야는 달리 봉수왕국이다.



봄수, 연기와 화살로 알리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00여 개소의 봄수는 옛길에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 정상부에 위치한다. 우선 산봉우리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고 석재 혹은 흙으로 장방형 붓대를 만든다. 장수 명덕리 봄수처럼 산봉우리 정상부가 자연암반인 경우에는 바위를 평탄하게 다듬었다. 붓대 정상부에는 불을 피우는 발화시설이 있는데, 발화시설은 2개의 장대형 석재를 10cm내외의 간격으로 나란히 놓고 그 주변을 원형으로 둘렀다. 자연암반인 경우에는 원형 혹은 장구형으로 바위를 파내어 발화시설을 마련했다. 완주 불명산 봄수의 동벽에는 붓대 위로 오를 수 있는 계단시설이 잘 남아있다.

발화시설은 2개의 장대형 석재로 10cm 내외의 간격으로 나란히 놓고 그 주변을 원형으로 둘렀다. 자연암반인 경우에는 바위를 평탄하게 다듬고 석재 혹은 흙으로 장방형 붓대를 만든다. 장수 명덕리 봄수의 동벽에는 붓대 위로 오를 수 있는 계단시설이 잘 남아있다.



산봉우리 정상부에



자연암반인 경우



바위를 평탄하게 다듬어

발화의 흔적
봄수의 배수관 발화시설, 즉 불을 피우는 시설이다. 이때 동부 일부 명수에서 볼 수 있던 석재 발화시설이다.



봄수, 불과 연기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00여 개소의 봄수는 옛길에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 정상부에 위치한다. 우선 산봉우리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고 석재 혹은 흙으로 장방형 붓대를 만든다. 장수 명덕리 봄수처럼 산봉우리 정상부가 자연암반인 경우에는 바위를 평탄하게 다듬었다. 붓대 정상부에는 불을 피우는 발화시설이 있는데, 발화시설은 2개의 장대형 석재를 10cm내외의 간격으로 나란히 놓고 그 주변을 원형으로 둘렀다. 자연암반인 경우에는 원형 혹은 장구형으로 바위를 파내어 발화시설을 마련했다. 완주 불명산 봄수의 동벽에는 붓대 위로 오를 수 있는 계단시설이 잘 남아있다.



장수가야 여러 갈래 봉수로 복원

봉수는 변방의 위급한 상황을 통일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통신제도에 속한다. 봉수로는 봉수와 봉수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봉수로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다. 모든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에는 국가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유적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전북 남원시 운봉읍.무주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순창군.충남 금산군에서 각각 시작된 여러 갈래의 봉수로는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만난다.

장수군 일제강점기 동남쪽 백화산에서 뻗어 내린 산자락 정상부에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20여 개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자리하고 있다.



장수가야 문헌 속 반과국이다

반과국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절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이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복원된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에 가야 고총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야

왕국이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100여 개소의 삼국시대 봉수가 확인되고 있다. 문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준 장수가야는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로 밝혀졌기 때문에 문헌 속 반과국이다.

봉수로 복원

봉수는 변방의 위급한 상황을 중앙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통신제도이다. 봉수로는 봉수와 봉수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봉수로는 출발지와 종착지가 있다. 모든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에는 국가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유적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전북 남원시 운봉읍.무주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순창군.충남 금산군에서 각각 시작된 여러 갈래의 봉수로는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만난다. 장수군 장계분지 동남쪽 백화산에서 뻗어 내린 산자락 정상부에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20여 개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자리하고 있다.

2개의 장대형 석재를 10cm내외의 간격으로 나란히 놓고 그 주변을 원형으로 둘러쌌다. 자연암반인 경우에는 원형 혹은 장구형으로 바위를 파내어 발화시설을 마련했다. 완주 불명산 봉수의 동벽에는 봉대 위로 오를 수 있는 계단시설이 잘 남아있다.

- 장수가야 문헌 속 반과국이다. -

반과국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절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삼국시대의 봉수가 발견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이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복원된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에 가야 고총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야 왕국이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전북 동부지역에서 100여 개소의 삼국시대 봉수가 학계에 보고됐다. 문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준 장수가야는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로 밝혀졌기 때문에 문헌 속 반과국이다.



전북가야=멸망가야



백제 무령왕은 기문과 대사를 두고 가야 왕국 반파국과 513년부터 515년까지 전쟁을 펼친다. 당시 3년 전쟁에서 백제가 승리하여 운봉고원 기문국이 백제에 편입 된다. 운봉고원 내 가야 고층의 내부 구조가 가야의 수혈식에서 백제의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뀐다. 전북 동부 지역에서 100여 개소의 봉수를 남긴 장수 가야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에 가야 고층에서 백제 묘제의 영향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고 백제토기도 유물로 부장된다. 이 무렵 백제와 줄곧 갈등관계를 보였던 장수 가야가 백제에 멸망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의 수혈식에서 백제의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뀐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100여 개소의 봉수를 남긴 장수 가야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에 가야 고층에서 백제 묘제의 영향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고

백제토기도 유물로 부장된다. 이 무렵 백제의 줄곧 갈등관계를 보였던 장수 가야가 백제에 멸망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가야의 멸망

백제 무령왕은 기문과 대사를 두고 가야 왕국 반파국과 513년부터 515년까지 전쟁을 펼친다. 당시 3년 전쟁에서 백제가 승리하여 운봉고원 기문국이 백제에 편입 된다. 운봉고원 내 가야 고층의 내부 구조가 가야의 수혈식에서 백제의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뀐다. 전북 동부 지역에서 100여 개소의 봉수를 남긴 장수 가야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에 가야 고층에서 백제 묘제의 영향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고 백제토기도 유물로 부장된다. 이 무렵 백제와 줄곧 갈등관계를 보였던 장수 가야가 백제에 멸망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보고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 철의 공헌도가 가장 높다.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요구된다. 하나는 원료인 철광석과 다른 하나는 연료인 양질의 숯과 또 다른 하나는 1500도까지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첨단기술이다. 전북 동부지역은 세 가지의 필수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종래의 지표조사를 통해 전북 동부지역에서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학계에 보고됐는데 대체로 전북가야의 영역과 일치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전북 동부지역은 한마디로 제철유적의 보고이다.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보고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이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다. 1989년 남양리 이방마을 김승남씨가 무구덩이를 파던 중 청동유물과 철기유물이 나와 발견매장 문화재로 신고함으로써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모두 5기의 초기철기시대 적석토광묘에서 세형동검과 검파두식, 세문경, 동모, 동착,

동경을 비롯하여 철부, 철사, 관옥, 흑도장경호 등의 유물이 서로 섞인 상태로 나왔다. 유물의 조합상을 근거로 기원전 2세기 중엽 경 만들어진 당시의 지배자 무덤으로 밝혀졌다. 장수 남양리는 가야 철의 요람이다.





장수 명덕리 대적골 제철 유적

백두대간 장수덕유산 서쪽 대적골 2.1km 구역에 위치한다. 2017년부터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어 발굴 조사가 진행됐다. 다구역은 'U자' 형 석축을 쌓아 작업공간이 마련됐는데, 유구는 제련로 4기, 단야시설 2기, 추정 용해로 1기, 석축시설 1기, 퇴적구 등이 조사됐다. 라구역에서는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에 조성 시기를 달리하는 건물지와 석축이 확인 됐으며, 유물은 삼국시대와 후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토기편과 기와편, 자기편이 출토됐다. 마구역에서는 주조와 관련된 작업시설과 용범요 2기, 철제술 용범 퇴적구가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제철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가야 아이언 로드

터키 아나톨리아 히타이트에서 처음 시작된 철기문화가 실크로드와 중국을 거쳐 바닷길로 전북에 전래했다. 2200년 전 두 갈래의 바닷길로 만경강유역에 도착했던 제나라 전횡과 고조선 준왕의 선진세력은 당시 전북혁신도시를 테크로밸리로 만들었다. 전북혁신도시에 기반을 둔 전횡의 후예들이 한 세기 뒤 장수군 친천면 남양리로 이동했던 것 같다. 제나라 또한 고조선을 출발하여 전북 동부지역으로 철기문화가 전파된 경로를 장수가야 아이언로드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터키 히타이트에서 장수 남양리까지 1400년 남짓 소요됐다.

- 진안 동향면 대량리 구리를 생산하다

1500년 전 가야와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진안고원에 국력을 쏟았다. 당시 국력의 원천으로 알려진 구리와 철이 생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광석을 녹여 구리를 생산하던 제동유적이 처음 발견된 곳이 진안군 동향면이다. 본래 '구리고울'이라는 지명처럼 초기철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구리를 생산해 진안고원의 위상을 최고로 높였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널리 쓰인 청동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구리는 녹는 온도가 낮아 일상생활에 널리 이용됐다. 그만큼 철 못지않게 인류의 역사 발전에 공헌도가 높은 것이 구리다.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은 생산유적의 백미이다.

장수 가야에서 후백제까지 장수 합미산성



장수 합미산성은 포곡식으로 자고개 북쪽 금남호남정맥에 위치한다. 성벽은 둘레 430m로 돌여쌓기와 줄쌓기, 품자형 쌓기 방식으로 쌓아 잘 남아있다. 성들은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었는데 옥수수 낱알모양과 거의 흡사하다. 모두 세 차례의 발굴조사에서 유물들이 집수시설이 발견 됐는데, 집수시설은 백제가 원형을 후백제가 방형을 이룬다. 삼국시대부터 후백제에 이르는 토기편과 인각와, 와당, 기와편, 목재류 등 다양한 유물이 나왔다. 가야토기편이 수습되어 장수 가야가 터를 닦고 후백제에 의해 개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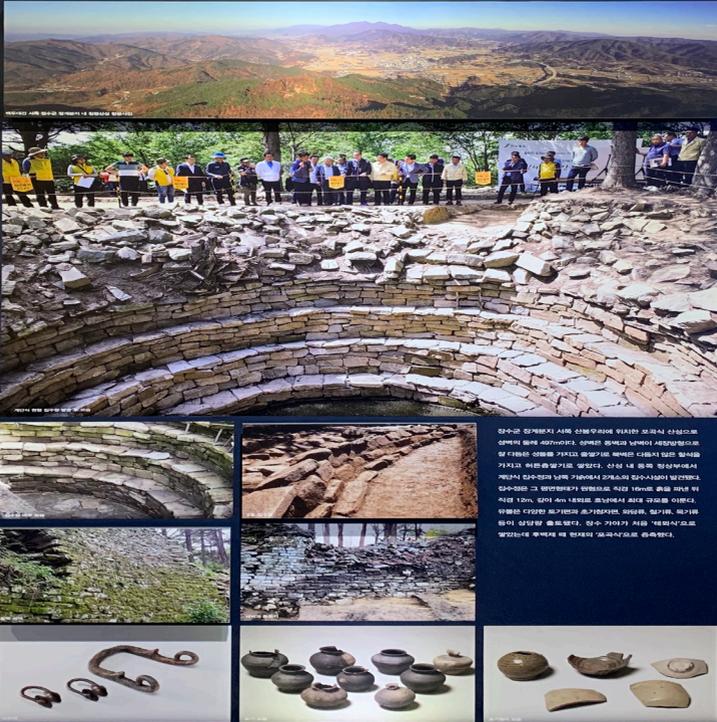


장수 가야에서 후백제까지 장수 합미산성

장수 합미산성은 포곡식으로 자고개 북쪽 금남호남정맥에 위치한다. 성벽은 둘레 430m로 돌여쌓기와 줄쌓기, 품자형 쌓기 방식으로 쌓아 잘 남아있다. 성들은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었는데 옥수수 낱알모양과 거의 흡사하다. 모두 세 차례의 발굴조사에서 4개소의 집수시설이 발견 됐는데, 집수시설은 백제가 원형을 후백제가 방형을 이룬다. 삼국시대부터 후백제에 이르는 토기편과 인각와, 와당, 기와편, 목재류 등 다양한 유물이 나왔다. 가야토기편이 수습되어 장수 가야가 터를 닦고 후백제에 의해 개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 최대 규모 집수시설 장수 침령산성



장수는 장계분지 서쪽 산봉우리에 위치한 포곡식 산성으로 성벽의 둘레 497m이다. 성벽은 동벽과 남벽이 세장방향으로 잘 다듬은 성돌을 가지고 줄썩기로 북벽은 다듬지 않은 할석을 가지고 허튼썩썩기로 쌓았다. 산성 내 동쪽 정상부에서 계단식 집수정과 남쪽 기슭에서 2개소의 집수시설이 발견됐다. 집수정은 그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직경 16m로 흙을 파낸 뒤 직경 12m, 깊이 4m 내외로 호남에서 최대 규모를 이룬다. 유물은 다양한 토기편과 초기청자편, 와당류, 철기류, 목기류 등이 상당량 출토됐다. 장수 가야가 처음 '테피식'으로 쌓았는데 후백제 때 현재의 '포곡식'으로 증축했다.

호남 최대 규모 집수시설 장수 침령산성

장수군 장계분지 서쪽 산봉우리에 위치한 포곡식 산성으로 성벽의 둘레 497m이다. 성벽은 동벽과 남벽이 세장방향으로 잘 다듬은 성돌을 가지고 줄썩기로 북벽은 다듬지 않은 할석을 가지고 허튼썩썩기로 쌓았다. 산성 내 동쪽 정상부에서 계단식 집수정과 남쪽 기슭에서 2개소의 집수시설이 발견됐다. 집수정은 그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직경 16m로 흙을 파낸 뒤 직경 12m, 깊이 4m 내외로 호남에서 최대 규모를 이룬다. 유물은 다양한 토기편과 초기청자편, 와당류, 철기류, 목기류 등이 상당량 출토됐다. 장수 가야가 처음 '테피식'으로 쌓았는데 후백제 때 현재의 '포곡식'으로 증축했다.



1500년전 화려함을 추는 장수가야

장수가야문화유산분포도



작지만 강하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가야**
그 속에서도 인식조차 되지 못했던 **장수**, 가야의 중심으로 솟아오른다.

가야는 1500년 전 한반도 남부 지역에 형성된 33개의 가야국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였다. 가야는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다. 가야는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다. 가야는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다.



왜 가야는?
백두대간을 넘어 동부 산악권에 거대 세력이 존재 했던걸까?

장 수가야를 둘러 보며
알아 봅시다!!





대가야연표

42년 | '정견모주'라는 가야산의 여신과 '이비가지'라는 하늘신 사이에 태어난 뇌질주일이 대가야의 시조 이진아시왕이 되었다는 건국신화가 전해온다.

대가야의 건국 신화

-2,000여 년 전 가야산 깊은 골에 한 여신이 살고 있었다. 성스런 성품과 아름다운 용모, 착한 마음을 지닌 산신, '정견모주'였다. 산신의 소원은 인간이 살기 좋은 터전을 닦아 주는 것, 그녀는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하늘에 소원을 빌었다. 어느 봄날 이를 가상히 여긴 하늘신 '이비가지'가 오색 꽃구름 수레를 타고 가야산 중턱 가마바위에 내려 앉았다. 산신과 하늘신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산 속에서 감응하여 옥동자 둘을 낳았는데, 형은 대가야의 시조 '이진아시왕'이 되었고, 아우는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이 되었다는 설화이다.

382년 | 백제와 우호관계를 맺다.
가라국왕 기본한기가 백제와 우호관계를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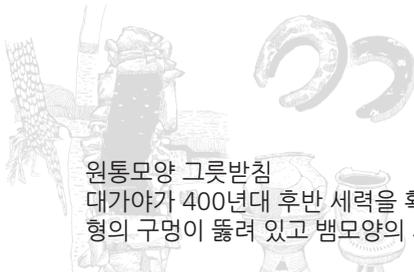
400년 | 백제,가야,왜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하다.
백제,가야,왜의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하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 주었다. 즉, 광개토대왕이 보낸 5만명 병력이 임나가라(금관가야로 추정)의 종발성에 이르자 성이 항복함. 이때 대가야는 금관가야와 달리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464년 | 신라를 구하러 가다.
신라의 구원요청을 받아들여 가야왕이 신라를 구원하였다.

479년 | 대가야
드디어 국제사회에 진출하다.
대가야 하지왕의 명을 받은 사신 일행이 중국 남제에 들어가 '보국장군 본국왕'이란 작호를 받았다. 이는 대가야가 가야제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국제적 공인을 받은 셈이다.

481년 | 대가야, 5세기부터 150여 년 간 가야의 맹주국이었다.
백제, 신라와 동맹해 고구려,말갈이 신라의 미질부성(경북 포항)을 침공하자 원병을 보내기도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주변 정세에 힘입어 대가야는 손쉽게 서쪽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백두대간을 넘어 기문지역(지금의 전라북도 남원,임실,장수)을 차지함으로써 광범위한 권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원통모양 그릇받침

대가야가 400년대 후반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각형, 삼각형의 구멍이 뚫려 있고 뱀모양의 세로장식 띠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522년 | 이뇌왕, 신라왕족 여자와 결혼하다.

대가야의 이뇌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결혼동맹을 청하니 신라에서는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보내 결혼하였다. 이들 사이에 월광태자가 태어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마의태자가 신라 최후의 왕자라면 월광태자는 대가야 최후의 왕자이다.

지산리 44, 45, 47호 고분은 대가야의 중국과 왜에 사신을 보내거나 교역을 하며 왕성한 활동을 벌이던 시기를 반영한다. 44, 45호 고분에서는 각각 32기와 11기의 순장덧널과 칼, 말갈춤, 금귀걸이 등이 쏟아져 나와 그 위세를 실감케한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중국에 사신을 보낸 하지왕이나 가야금을 만들게 한 가실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산리 5호 고분은 지산리고분군 중 최대 규모이며, 칼, 금귀걸이, 은팔찌, 금동화살통이 나와 전성기를 누렸던 400년대 후반 ~ 500년대 중반기 왕의 무덤인 것으로 보인다.

532년 | 금관가야, 신라에 항복하다.

금관국왕 김구해가 왕비와 노중, 무덕, 무력 등 세 왕자를 데리고 신라에 항복하였다.

김해의 금관가야는 400년 경에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에게 패전한 뒤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이후 고령의 대가야, 함안의 안라국이 중심이 되어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6세기로 접어들면서 가야 연맹은 신라와 백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치열한 외교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금관가야는 532년 신라(법흥왕 19년)에 멸망하였다.

551년 | 국운이 기울어 가야금도, 우륵도 떠나다

신라의 진흥왕이 낭성(청주)에 행차하였을 때, 대가야 출신의 악사 우륵과 그의 제자 이문을 불러 음악을 연주케 하였다.

우륵: 원래 대가야국 사람으로 가실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왕의 뜻을 받들어 12현금(가야금)을 만들고 수많은 연주곡을 지었으나, 현재는 12곡의 이름만 전해져 온다. 550년을 전후하여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신라로 떠났다.

554년 | 백제와 대가야의 만남, 대가야 종말 암시하다.

대가야는 백제와 함께 신라의 관산성(충북 옥천)을 공격하다가 크게 패배하였다.

대가야는 신라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시 백제,왜와 연합을 추진하였다. 일본서기에는 이들 세력들이 541년과 544년 두 차례에 걸쳐 백제 성황이 주재한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대가야의 이러한 외교정책도 554년 백제 성황이 이끄는 백제,가야,왜 연합군이 관산성에서 패배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자 대가야가 마침내 항복하였다.





562년 | 철의 나라, '대가야' 마침내 황혼을 맞이하다.

제 16대 도설지왕 때 신라 진흥왕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9월 신라 진흥왕이 이사부를 시켜 대가야를 공격하게 하고 사다함으로 하여금 부장으로 삼았다. 사다함이 기병 5천명을 이끌고 먼저 쳐들어와 전단문에 흰 깃발을 세우자 성안이 두려워 여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자 대가야가 마침내 항복하였다.

장수가야로의 초대



주최: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주관: 장수군



시행:



장수가야리